

# ‘실질적 약가 정책’이 산업에 도움 신약개발, 밸류업·투자전략도 필요

**K-바이오, 장기적 성장 로드맵  
약가 정책 개선으로 신약 상업화 박차  
신약개발 리스크 관리·자금조달 중요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약가 정책,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에서 열린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비용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민간 정부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을 말했다.

노연홍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나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현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이 있어서도 보험 약가 정책이 산업의 투명성과 미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가 국가 핵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단순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유승래 교수는 ‘약가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약가 제도는 약물의 다양한 가치를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우선 기존 약물 대체에 따른 임상적·사회적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 대체 의약품이나 제네릭의 약품이 있는 경우, 신약에 낮은 약가가 책정되는 경직된 약가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국산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쉽게 달성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글로벌 회사의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특히 같은 기전의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는 ‘베스트인 클래스’ 개발에 중점을 두는데 이때 후속 약물에 대한 기대치와 약가의 편차



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에서 열린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가 커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세계적 수준의 규제 기관에서 품목허가를 받고 해외 발매된 국내 제품이 정작 국내에서는 등재에만 그치기도 한다.

유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약가 정책을 개선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약가 규제가 연구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와 업계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감소하고 동시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증명됐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업화와 R&D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의 ‘신약 개발, 죽음의 계곡 어떻게 건널까’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 발표에서 우정규 이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생존법으로 벤처캐피탈(VC)과 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유치, 전략적 투자자(SI)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강조했다.

우정규 이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의 밸류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계마다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연구, 임상 진입, 마케팅 등 각 단계에서 기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평가를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모든 단계 가운데

신약의 운명은 초기에 정해진다”며 “초기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드러나지 못하면 투자가 지속되지 않고, 연구개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면 신약 개발은 실현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자금 조달 역량은 기업 수명과도 연관되므로 ‘마일스톤 기반의 기업 성장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울 것을 강조했다. 또 자금조달 이후에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밸류업 논의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해 동안 투자되는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는 국내 상위 제약사 10개 수준을 합산해도 글로벌 제약사 1개 수준에 못 미친다”며 “협력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K제약·바이오가 발전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고환율로 시작된 바이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우 이사는 “바이오 분야 글로벌 벤처투자의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해 회복 추세에 있으나, 국내까지 추세가 이어지려면 내년까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탈(VC)의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4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VC 투자 보릿고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230억 투자로 행성 로버 부품 국산화 추진

**산업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협약  
민관 협력 강화... 13개 기업 참여  
자동차·로봇·우주 성장 동력 창출**

민관이 230억원을 투자해 행성 탐사용 로버(Rover) 핵심 부품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천안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행성탐사용로버 구동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 착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버는 유·무인으로 운용되는 우주 탐사 차량으로 행성 탐사의 핵심 수단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100여개 이상의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될 전망이며, GM, 록히드마틴, 토요타, 혼다 등 글로벌



달 탐사 로버 활동 예상도. /현대자동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로버 개발을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들도 우주 신산업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로버 기술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산업부는 우주에서도 작동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최초로

기획해 민간 주도의 첨단 우주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산업 기술의 확장성이 높은 모빌리티(한자연, 현대자동차), 로봇(로보트), 원전(한국원자력연구원), 우주(저스텍), 첨단 부품(한일하이테크) 등 다양한 분야 13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다.

국비 181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원을 투자해 극한환경(극저온, 고진공, 고방사선 등)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버용 모터·드라이버·감속기, 현가장치, 로봇팔, 에어리스 휠 및 통합모듈, 우주 극한 환경용 특수 윤활 기술, 회전체 부품 개발 등 10여종의 핵심 부품 개발에 도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오영주 “중동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상무부 장관 회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국 중소·벤처·창업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상무부 장관과 잇단 회담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4’ 참가와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K-부티 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진두지휘하면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사우디 핵심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첫 일정으로 지난 4일 알 팔레 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부는 지난해 우리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 거점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한국 기업의 중동 지역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지난해 중기부와 투자부가 체결한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의 협약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5일에는 오 장관과 비반(BIBAN) 주관 기관인 상무부 알 까사비 장관과의 회담도 성사됐다.

지난 7월 방한 때 오 장관에게 비판 초청 의사를 건넰던 알 까사비 장관은 중기부의 이번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추가로 예정됐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은 사우디측의 불가피한 일정으로 취소됐다.

오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비반 2024’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비반(BIBAN)’은 사우디 중소기업청(Monsha’at)이 주관하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 2017년부터 시작해 작년부터 국제 행사로 확대됐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혁신적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한국과 사우디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개막식 직후에는 무대에 올라 ‘국경을 초월한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했다.

연설 후에는 중기부와 사우디 중기청간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해외 스타트업 한국 진출 쉬워진다

중기부·법무부, ‘특별비자’ 도입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본격 도입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D-8-4)와 달리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창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

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어야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의 문을 연데 이어 이번에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특별비자 제도까지 도입한 것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세제혜택 확대

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입법에 나서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

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76만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